

“한조각 향 정성으로 바치오니...”

— 봉원사에서 영산재이수자 첫 평가 시연회 —

‘봉원일편향(奉獻一片香, 한 조각 향이오나 정성으로 바치오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영산재 이수자를 선정하는 첫 무대가 마련됐다.

20일 서울 봉원사(주지 인공)에서 열린 ‘2003년 영산재 이수평가 시연회’는 법패 분과(현수·현준·보운·정오·법안·외통·청봉·효광·태허스님) 9명과 범무 분과(범우·미산스님) 2명 등 총 11명의 전수생들이 이수자가 되기 위해, 준비유자 구해스님을 비롯, 전수교육보조자 일운·기봉·송강스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자리였다.

시험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본이 되는 재인 상주권공제(常住動供齋)

상단의식(上壇儀式) 합향(合香) 중 봉원일편향(奉獻一片香), 저승에 있는 10대왕에게 지비를 비는 의식인 시왕각배제(十王各拜齋) 개계(開階) 중 비수(備水)소리, 국가의 안녕과 군인

며 그 동안 갖고 두었던 실력을 뽐냈고, 범무 분과에 도전한 전수생들은 천수바라를 추며 녹록치 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

행사에 앞서 영산재보존회 회장 인공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응스님의 입적으로 73년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이래 30년 동안 영산재 복원과 계승에 힘써온 ‘영산재 1세대’가 모두 역사 속에 묻혔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원형을 기억하고 있는 스님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장(魚丈, 영상재 작법에 달통한 이를 이르는 말)이었던 일응스님이 올해 5월 11일 입적함에 따라 보유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전수교육보유자 4명, 이수자 18명만이 영산재의 명맥을 잇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법패 9·범무 2명 등 스님 11명 참가 훗소리·화청등 같고 닦은 기량 발휘

들의 무운장구·큰 단체나 죽은 자를 위한 영산재(靈山齋) 향화계(香花燭) 중 원차(願此)에서 출제됐다.

법패 분과에 도전한 전수생들은 훗소리와 짓소리, 화청 등을 섞어가

존화의 심사를 거쳐 이수자가 되면 문화재청의 기량조사와 평가를 받은 후 전수교육보유자·보유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수평가 시연회 결과는 가을을 즈나올 예정이다.



혜성스님등 여성성직자 ‘새만금’ 도보순례 (혜성스님(대원사), 오영숙(새만금생명평화연대 집행위원장)·김현옥 수녀(서울대학교 환경사무위원회 사무국장)·김근자 수녀(성심수녀회), 양영인 교무(유리교당), 박후임 목사(기독교여성회 회장) 등 6명의 여성성직자들이 20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출발, 성남-논산-익산 등을 거쳐 7월 1일 오후 4시 해창갯벌에서 회향하는 도보순례에 나섰다. 사진=박재환 기자

북한산도로 공청회 무산됐다

고총리 “공정성 의문” 불교의견 수용 취소지시

19일 예정됐던 북한산 공청회가 객관성과 공정성 의혹으로 무산됐다. 17일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객관성

없는 사회자 선임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장 불참 ▲현 노선 찬성자를 토론자로 선임 ▲공청회 순서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경위 설명’ 삽

입에 따른 객관성 상실 등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불교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노선재검토위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청회 취소를 지시했다. 또 총리실 관계자는 대안으로 조계종이 제안한 ‘노선재검토 위원을 토론자로 하는 공개 토론회’와 이를 통한 여론 수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황현호 의정부참여연대 홍보국장, 목영대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지구당 위원장 등은 16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이 기존 안 대로 공청회를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도 승복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권동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5일 오전 11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장군 사건’ 새 국면

국방부, 군검찰에 재조사 지시

석탑 현물시주가 현금수수로 둔갑한 김태복 장군 건이 국방부가 재조사 지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보선 국방부차관은 17일 김창해 법무관리관에게 김태복 장군 건과 관련, 유죄부본(2천만원 선고유예)에 대해 객관적 시각으로 군 검찰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군 당국이 유죄부본을 객관적으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군이 민주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태복 장군도 “불교계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 24일 선고공판 열어

19일로 예정됐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2일 보강증거 제시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재판장 김병은)는 13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

아들며,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심리를 갖기로 결정했다.

김철우 기자

재가연대, 새 단체복무규정안 제시

육아휴직 ‘일반’·‘시간제’ 중 택일 매 2년마다 1개월 연구휴무 도입

영·유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까지 5시간을 기본 단위로 2가지 유형(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9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 급여의 70%를 받는다면?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불교계 단체의 복무규정의 새 안을 제시했다.

재가연대는 16일 열린 17차 집행위원회에 ‘사무처 복무규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일반제 육아휴직’과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로 구분했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경우 영·유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까지 5시간을 기본 단위로 2가지 유형(9시부터 14

시까지, 14시부터 19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전문성 제고와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매 2년마다 1개월의 연구휴직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연구휴직’ 제도로 마련한다. 연구휴직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재직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휴직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영철 재가연대 사무처장은 “불교계의 사찰 및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해 활동가들의 복지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법장스님과 e메일



한명우 (취재1부 차장)



18일 법장스님으로부터 기자에게 이메일이 배달됐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없이 해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법장스님은 최근 총무원 출입기자들과 총무원들에게 이메일 주소(bubjang@buddhism.or.kr)를 공개하고 종단 제반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장스님은 또 총무원장 선거 당시 활용했던 개인 홈페이지를 개편, 이번 주 내로 개통해 본격적으로 종도들과 만날 계획이다. 총무

원장과 총무원, 종도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체제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렇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들겠다고 한 것은 종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과거 어느 총무원장도 종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총무원 밖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

을 수 있다는 것은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종단운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 비방이나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종단의 건전한 기풍을 위협할 위험성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홈페이지가 자유스런 ‘대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함은 물론이고, 종도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화재청 승격 9월 국회서 논의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에 대한 논의가 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행자부가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권형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신변,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콜택시
1588-5532



우면산 청정수원 관음도량 관문사

- 주지: 변춘광스님
- 입재: 7월 6일(일) 오후 2시 (이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백중: 8월 12일(화) 오전 9시
- 문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02)3460-5300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 주지: 삼호스님
- 기도입재: 2003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2003년 8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문의: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10-281 02)855-2834



백중 49재 지장 천도기도

- 주지: 원경스님
 - 6월 25일(음 5월 24일) 49일간 기도 입재 AM 11시
 - 8월 12일(음 7월 15일) 7재 천도법회
 - 문의: www.simgokam.org 02)914-8860
- 북한산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심속의 아름다운 절! **심곡암**



49일 백중기도

- 주지: 가섭스님
 - 입재: 양력 6월 25일(수)
 - 백중: 양력 8월 12일(화)
 - 문의: cafe.daum.net/kasup 031)719-0408
- 수미산 불국사**

백 중 기도

8월 12일(음 7월 15일)은 백중으로 불교계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도 하며 묘사상을 일깨우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선망 혹은 현세 부모 등 조상을 위한 천도제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

- 주지: 광우스님
- 입재: 양력 8월 4일(음력 7월 7일)
- 백중: 양력 8월 12일(음력 7월 15일)
- 문의: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02)742-1231



조상령천도 및 백중기도법회 봉행

- 주지: 정영도스님
 - 입재: 6월 22일(음 5월 23일) 오전 9시 30분
 - 회향: 8월 10일(음 7월 13일)
 - 백중(우란분절) 법회 봉행 8월 12일(음 7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 문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033)682-8100~2
-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한국불교태고종 능하사

- 주지: 성연스님
- 백중: 양력 8월 12일(음력 7월 15일)
- 문의: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18-4 02)701-7488

49일 백중기도

- 백중기도 입재: 2003년 6월 25일 * 1000일 지장기도 정진중
 - 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 종무소 02)521-1415, 주지실 02)583-1080**
-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사성암 서울포교원 보현정사